

왼쪽 측면 돌파 수비 뒷공간 노려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B조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인 나이지리아의 왼쪽 풀백 자원이 모두 부상을 당하면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에 호재로 떠올랐다.

나이지리아 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룸폰테인 프리스테이트 경기장에서 끝난 그리스와 대회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이날 패배로 나이지리아는 2패를 기록해 아르헨티나(2승·승점 6)-한국(1승1패·승점 3)-그리스(1승1패·승점 3)에 이어 B조 최하위로 떨어졌다.

비록 한국은 이날 아르헨티나에 1-4 완패를 당했지만 그리스와 승점과 골득실이 같고 다득점에서 앞서 조 2위를 유지해 16강 진출의 불씨를 이어갔다.

나이지리아 풀백들 부상 태극전사 호재 이청용 활용 빠른 템포로 득점 노려야

이런 가운데 이날 그리스와 철투를 펼친 나이지리아는 전반 33분 오른쪽 주전 미드필더 사니 카이타(알라니아 블라디미르)가 부상당한 반칙으로 퇴장당해 한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 왼쪽 풀백을 담당하는 주전과 백업 요원인 한꺼번에 부상으로 실려나가는 최악의 상황에 경향해야 했다.

주전 왼쪽 풀백인 타이 위(마르세유)는 후반 10분 허벅지 안쪽 근육을 다쳐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지리아의 라스 라예르베크 감독은 곧바로 타이위를 대신해 백업 멤버인 우와 에체에질레(스타드 렌)를 투입했지만 에체에질레도 그라운드에서 나선지 22분

만에 부상으로 쓰러졌다.

라예르베크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중앙 수비 요원인 라비우 아플라비(잘츠부르크)를 긴급 수혈해 경기를 치렀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며 역전패의 아픔을 곱씹어야 했다.

한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닦새 앞둔 라예르베크 감독으로선 퇴장당한 카이타를 대신해 오른쪽 미드필더를 맡을 선수는 물론 완전히 공백이 돼버린 왼쪽 풀백 자리를 메우는 게 발등의 불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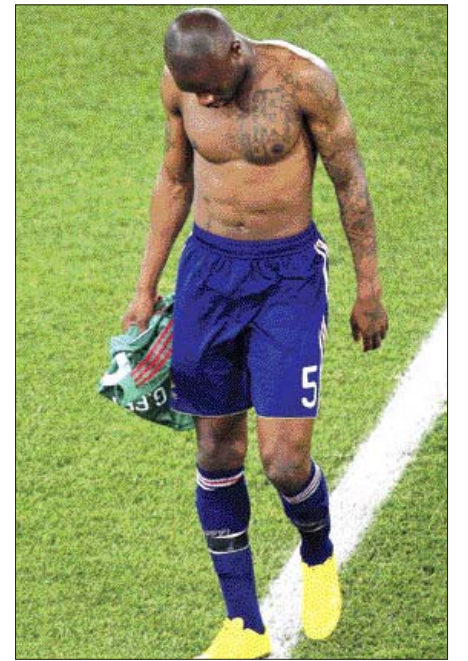
나이지리아의 약점은 결국 한국의 호재다. 한국은 발 빠르고 영리한 오른쪽 미드필더 이청용(불턴)을 활용해 허약해진 나이지리아의 왼쪽 수비 뒷공간을 부지런히 공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佛 무득점 탈락하나

멕시코에 0-2 져 16강 위기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프랑스가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내몰렸다.

프랑스는 18일 남아공 폴로라네의 피터 모카바 경기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2차전 멕시코와 경기에서 0-2로 졌다. 프랑스는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조 3위로 처졌다. 두 경기를 마친 A.B조 8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A조에서는 우루과이와 멕시코가 똑같이 1승1무로 1,2위에 나섰고 프랑스와 개최국 남아공은 1무1패로 하위권에 처졌다. 3차전에서 맞붙는 우루과이·멕시코가 '안전 운행'을 하며 서로 비기기만 해도 나란히 16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남아공을 물리치고 나서 우루과이-멕시코 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A조 최종 3차전은 22일 밤 11시에 멕시코-우루과이 경기가 루스벤버그 로열 바포켄 경기장에서, 프랑스-남아공 경기는 같은 시간 블룸폰테인 프리스테이트 경기장에서 열린다.



프랑스 윌리엄 갈라스가 18일 남아공 폴로라네의 피터 모카바 경기장에서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 멕시코와 경기에서 0-2로 패한 후 고개를 숙이고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충암고 권태연 완봉 쾌투 4강 안착

대통령배 우승팀 휘문고가 장충고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4강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 호남팀중 유일하게 8강에 올랐던 진흥고는 북일고에 콜드게임패를 당하며 8강에서 탈락했다. 충암고는 경동고에 대회 첫 완봉패를 안기며 4강에 올랐다.

◇휘문고 4-1 장충고
대통령배 우승팀 휘문고가 장충고를 4-1로 꺾고 시즌 두 번째 우승을 향한 순항을 이어갔다.
휘문고는 1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

된 기록하면서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다. 휘문고가 0-1로 뒤지고 있던 8회초 뒤늦게 휘문고 클린업트리오가 폭발했다.
박태원이 볼넷으로 걸어나가 1사 1루, 3번 박민우가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4번 조용성과 5번 윤정훈도 똑같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터트리며 장충고 에이스 윤영삼을 무너뜨렸다. 휘문고는 희생번트로 1점을 보태며 순식간에 4점을 뽑아냈다.
뒤늦게 타선의 지원을 받은 임찬규는 사사구 없이 7과 3분의 2이닝 동안 3피안타(1

삼) 1실점의 호투를 기록하면서 대회 3승째를 쟁겼다.
진흥고의 마지막 자존심 진흥고가 북일고에 2-9, 7회 콜드게임패를 당했다.
서울팀의 강세 속에 8강 경쟁에서 생존한 진라도 대표 진흥고와 충창도 대표 북일고가 8강에서 만났다. 1회부터 진흥고 마운드가 흔들렸다.
진흥고 선발 양승철이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선두타자 한덕고를 내보냈다. 한덕고는 폭투에 이어 도루에 성공하며 3루를 밟았다. 김인태의 볼넷으로 무사 1·3루, 양승철이 3번 오준혁을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4번 홍성



18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7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전 장충고와 휘문고의 경기. 휘문고 6회초 공격 1사1루 상황에서 타자 윤정훈의 내야땅볼로 1루 주자 박민우가 2루에서 포스아웃 되고 있다.

‘배짱투’ 휘문고 임찬규 홈런 맞고도 3승 챙겨 투수력 난조 광주 진흥고, 북일고에 7회 콜드패

린 장충고와의 8강 경기에서 8회 3루타 세개를 몰아치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4-1로 역전승을 거뒀다.
장충고 좌완 에이스 정다환과 휘문고 에이스 임찬규가 선발로 출격했다. 임찬규가 먼저 점수를 내졌다.
2회 장충고의 1학년 송준석이 1사에서 임찬규의 직구를 잡아당겨 대회 6호 홈런을 터트렸다. 임찬규는 홈런을 얻어맞기는 했지만 두 타자를 삼진으로 잡으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장충고의 득점 이후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됐다. 정다환이 5와 3분의 2이닝을 1피안타 막은 뒤 윤영삼에게 마운드를 넘겨졌다. 휘문고 임찬규도 4회부터 7회까지 삼자범

몸에 맞는 볼로 밀어내기 1점을 얻어내면서 점수는 5-2, 7회말 북일고가 진흥고 투수 고재환의 난조를 틈타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1사 1·2루, 신준섭의 2루타로 2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송병호가 볼넷을 골라내면서 만루를 채운 북일고는 박근주의 중전안타로 7-2까지 도망갔다. 곧이어 한덕고의 유격수 앞 땅볼 때 3루주자 송병호가 홈을 밟으면서 9-2 콜드게임이 완성됐다.
◇충암고 4-0 경동고
충암고도 경동고를 꺾고 4강에 안착했다. 충암고는 경동고와의 8강 경기에서 선발 투수 권태연의 호투에 힘입어 4-0 완봉승을

거뒀다. 9회까지 충암고 마운드를 책임진 권태연은 무실점의 투구로 대회 첫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다.
1회초 충암고의 조영재가 1루수 옆을 스치는 안타로 출루한 뒤 조성진의 2루타에 홈에 들어오면서 첫 득점을 기록했다. 송구실책으로 3루까지 진투했던 조성진은 4번 유원선의 우전안타 때 홈을 밟았다.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한 충암고는 2-0으로 앞선 2회초 김병재의 3루타와 강병의 2루타를 묶어 추가득점을 올렸다. 5회에도 유원선과 김동환의 2루타가 연달아 터지면서 충암고는 4-0까지 달아났다.
경동고는 6명의 투수를 투입하면서 총력전을 벌였지만 타선이 불발에 그쳤다. 권태연의 구위에 놀린 경동고 타자들은 2루를 한

번도 밟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공격을 펼친 끝에 충암고에 완패를 당했다.
충암고 선발 권태연은 9회까지 3피안타로 경동고 타선을 봉쇄하며 자신의 첫 완봉승이자 대회 첫 완봉승을 장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무등기 스타

투구수 73개로 상대 타선 제압

충암고 권태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투수로 전향했는데 첫 완투경기에서 완봉승을 거둬 기쁨이 더 큼니다. 이 기세로 팀이 우승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충암고의 투수 권태연(18·우투우타)이 경동고와의 8강 경기에서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3피안타 1사사구 3탈삼진을 기록, 대회 첫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다.



자를 제압하며 위기 상황에서 병살타 2개를 유도했다.
권태연은 “7회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다음 타자의 직선타구를 잡아 더블 플레이를 하면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동료들의 안정된 수비도 완봉승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롯데 자이언츠의 조정훈 투수를 좋아하는 권태연은 “조정훈 선수처럼 변화구 제구력을 키워 좋은 투수가 되고 싶다”며 “개인적인 기록보다 팀의 우승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

생활 게시판

환곡

▲김경원(전 장성 문항고 교장)·정경숙씨 삼남 도연군 박치영(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모아건설 회장)·임성순씨 장녀 윤하양=20일(일) 낮 12시 윤암동 그랑시아웨딩타워 5층(그랜드볼룸)
▲배동철·정정자씨 장남 석현군 박철열(전 광주일보 서울지사국장)·이외순씨 차녀 주원양=20일(일) 오후 1시 경기도 부천시 노블리안웨딩컨벤션 9층(상제리 제물)

부음

▲천공연씨 별세 오원중(개인사업)·원철(광산소방서월곡센터장)·원구(개인사업)·원민(전남대 치대교수)·원태(여수연합의원 원장)·경순씨 모친상 정선희·박성숙·김은정·양혜령(광주시 시의원)·정혜경씨 시모상=발인 19일(토) 무등장 예식장 102호. 062-515-4488.
▲김연님씨 별세 조구현(청솔건설회장)·조대동총회 부회장)·동현(전 금호고속 상무)·성현(청솔건설·도곡스파랜드 대표이사)·명현(전 그락소재약 본부장)·철호(덕진건설·나라건설 대표이사)·광주체조협회장)·경숙·현자·형숙씨 모친상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 227-4000

故 박정례 님 (여/78세)
주/부/매 이경현/김재현 이순혁/박성동
남/녀/매 이영희/최순경
호실 101호 06월 19일
장지 영덕공원

故 김석만 님 (남/82세)
주/부/매 권철민/이순자/강성혜/박현진
남/녀/매 김영미/김영준
호실 402호 06월 19일
장지 영덕공원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주차장 - 정갑환 흡식

=발인 19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